

33 朝鮮土地改良事業史 조선토지개량사업사

1960년 / 古庄逸夫(후루쇼 이쓰오) / 185면 / 08.10-08 고71토 1960

이 책은 조선통치관계의 주요문헌 중 하나로 전 조선총독부 토지개량과장이던 古庄逸夫(후루쇼 이쓰오)가 1960년 1월에 펴낸 200부 한정판이다. 185면으로 된 이 책은 조선총독부에 근무하던 사람들의 친목 단체인 우방협회에서 발행했다.



구성은 전편, 중편, 후편으로 되어 있는데, 전편에는 일본통치 이전의 토지개량사업과 조선산미(朝鮮産米) 증식계획 등에 관한 것을 기록했다. 중편에는 동진강 수리조합을 비롯한 환해수리조합, 함흥수리조합, 안녕(安寧)수리조합, 소화(平南)수리조합 등 대규모 수리조합에 관한 기록을 수록했으며, 후편에서는 수리조합 사업과 관련된 회고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에 따르면 한말(韓末)이라 할 수 있는 1912년의 우리나라에 제언수(堤堰數)는 3,735개소, 보(洑)는 9,386개소였는데 1917년에는 각각 6,500개소와 2만 1천 개소로 늘어났다고 되어 있다. 또한 1910년 한일합병 당시의 쌀 생산량은 1,000만 석이었는데 해방되던 1945년에는 2,300만 석으로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일제 36년 간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것을 상기하면 된다.

동진강수리조합에 따르면 수리사업 실시 이전의 전라북도 일대는 습지였다 한다. 그래서 왕조시대에도 이 지역은 도로를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한다. 동진강수리조합은 당시

전라북도지사 亥角忠藏(이스미쥬소)가 퇴임 후 스스로 조합장이 되어 1925년에 조합을 설립했다. 동진강수리조합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는 1924년 남선(南鮮)지방의 대한발이었다. 이때 동진강수리조합 지역인 김제, 정읍, 부안은 그 피해가 극심하였다. 따라서 동진강수리조합은 이들 3개군 읍, 22개 면에 1만 4,560정보(약 4,400만 평)으로 당시 조선 최대의 수리조합이었다.

그들의 회고담에 의하면 일제 통치하에 있을 때 일본서 수많은 투기꾼들이 왔다. 토지는 물론 수리조합에도 이러한 추세가 밀어닥쳤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당시 일본의 문교부장관(종전 후 수상)이었던 하도야마(鳩山)의 낙산(樂山)수리조합이다. 당시 하도야마는 친히 조선에 와서 함경북도 북단 소만국경지역에 국유지 1,000정보를 불하받아 수리조합까지 설립했으나 벼농사가 되지 않아 결국은 자금을 대출한 식산은행과 조선총독부가 사업을 정리하기도 했다.